



3면

민주,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음 11월 8일) 제315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공공의료 발전 협의체 구성

남원의료원 서비스 향상
역량 강화 위한 교류 위해
도,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공공의료 발전 협약 체결

군산·진안의료원까지
인력 교류 확대 방안 추진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공공의료 발전 협의체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진성찬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왼쪽),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오른쪽)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김관영 도지사, 진성찬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

전북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국외의원 도,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힘을 모아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진성찬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공공의료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성공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인력 교류 등 연계·협력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남원의료원에 의사인력을 순회 진료 또는 파견 근무 형태로 지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간호 관리 심폐소생술 등 직무교육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남원의료원은 그동안 의사인력 확보

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파견하는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과 공공 임상교수제를 추진해왔으나, 대학병원의 의사부족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전북도는 이같은 공공병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체계를 구축, 남원의료원이 공공

병원 최초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도내 공공의료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원의료원에서 성공모델을 개발한 뒤 군산의료원 진안군의료원까지 인력 교류와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국립

중앙의료원과 국회의원의, 도 지방의료원이 맺은 다년간 협약으로 전국 최초 모델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필수요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민선 8기 20대 핵심전략인 지역·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는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경수 기자

정읍 '샘고을 정다운상권' 내년 상권활성화 공모 선정

지역콘텐츠·샘고을시장 전통 살린 특화거리 조성
상품 개발·체험프로그램 운영·기업과 상생 협력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3년 상권활성화사업'에 정읍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상권활성화(구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쇠퇴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특색반영 거점공간 조성 및 테마구역 설계·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읍 '샘고을 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최대 80억원으로 샘고을시장 및 그 주변상권(중앙로·우암로·새암로)에 추진된다. 오는 2023년도 사업부터 적용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 3년 운영성과에 따른 2년 사업연장 방침에 따라 2025년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샘고을 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의 정을 나누고 문화를 즐긴다는 주제로 정읍시 지역콘텐츠와 샘고을시장의 전통을 살린 특화거리 조성·특화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기업과의 상생협력 통한 사업 등이다. 전북도는 현재 2020년 군산시 공모선정을 시작으로 부안군(2021), 익산시(2022)까지 3개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정읍시(2023) 공모선정으로 도내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다. 윤동욱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한 도내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활력에 기대가 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수출기업 애로 해소 머리 맞대다

전북도, 일진제강·성일하이텍 등 도내 9개 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

전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도내 기업가들을 만나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허파에 머리를 맞대었다. 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일진제강, 성일하이텍, 로얄캐닌코리아, 대주코레스, 오디텍, 고려자연식품, 세창스

틸, 하이슬 세원하드웨어 등 도내 9개 수출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관련사진 3면) 이번 간담회는 김 지사가 취임 후 공식적으로는 처음 수출기업을 초청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통상진흥원 이용원 원장 코트라 전북지원단 박기원 단장 한국무역협회 박준우 본부장 군

산세관 최천식 관장 등 유관기관장들도 참석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수출마케팅, 물류비, 인력난, 산업안전 및 환경, 외국인 근로자 고용, 폐기물 재활용, 펫푸드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20여건의 애로를 호소해 왔다. 모 기업대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기업들은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다양한 정책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또,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테스트마켓 지원 확대와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 해외규역인 증 확대지원에 상향, 근로자 대상 수출전문교육 개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우리 전북의 경쟁력이다"며 "기업-공무원 전담제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피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새만금 국가산단에 유압실린더 제조사 건립

새만금청, 유압기기 전문업체 신진이엔티와 협약
60억원 투자 내년 1월 공장 착공 24명 고용 창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유압기기 전문기업인 (주)신진이엔티와 새만금 국가산단에 유압실린더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주)신진이엔티는 내년 1월 새만금 국가산단(2공구) 1만8,000㎡ 용지에 60억원을 투자해 건설장비 선박 제철 관련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유압실린더 생산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2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주)신진이엔티의 새만금 투자는 타 지역 대비 우수한 기업지원 정책과 보조금 혜택, 충분한 용지 확보로 사업 확장이 용이한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 또, 항만, 공항 등 속도감 있게 구축

되고 있는 물류 기반시설과 산단 내 연관 기업들과 효율적 협력이 가능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택 (주)신진이엔티 대표이사는 "지역의 특성화, 대학교 등과 연계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중소기업의 초기투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있게 조화롭게 이루 동반성장하는 모범 산단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부안군의회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김광수 의장	 이현기 부의장	 김두례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
 이용님 의원	 박병래 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원	 이한수 의원

포털사이트에서 **부안군의회** 을 검색하세요 <https://council.buan.go.kr>